


제 2의 김용균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전조합원, 전조직이 함께 합시다!

2019년 1월 9일(화) | www.nodong.org | 민주노총 교육원 | 02-2670-9162 

“여러분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다시는 우리 용균이 같은 처참한 죽음을 만들어 내지 마십시오!” - 3차 추모제에서 고김용균님 어머니(김미숙)의 호소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4km에 이르는 석탄운송설비를 홀로 걸어서 야간 점검을 하던 하청 계약직 노동자 김용균님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 노동자와 만납시다!’ 라던 고인의 마지막 모습은 유언이 되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는 없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마침내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김용균법’ 이라고 명명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조차 고 김용균님과 그 동료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여전히 도급 금지 범위 밖에 있으며, 아직도 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토대로 고 김용균님을 죽음으로 내몬 현장 작업조건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노동부와 서부발전은 사건을 은폐시키는데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토대를 둔 재발방지 대책이 죽음을 부른 외주화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장 작업조건의 근본적 개선과 시설 완비 포함하여 제대로 수립, 시행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춰서는 안됩니다.



우리 사회를 비정규직 없는 세상,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2의 김용균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중단 없이 전개해 나갑시다.

△추모 버튼·리본 패용,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 △사업장별 추모 분향소 설치, △태안분향소 집중조문, △지역 대책위 추모 문화제 및 추모행동 참여, △1월 19일 조합원과 간부가 최대한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 및 범국민 추

모제 개최로, 승리하는 2019년 투쟁의 한 획을 그어나갑시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를 외치며 전 민주노총이 함께 투쟁하는 속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모든 노동자의 단결·교섭·파업권 쟁취,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성 확대 등을 위한 2월 투쟁 승리의 길로 함께 달려 갑시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동지 관련 1월 투쟁 일정

1/10 진실은폐, 작업재개 시도 서부발전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주관 : 충청권 3개 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 때 : 2019년 1월10일(목) 15시
- 곳 : 충남 태안 서부발전 앞

1/12 전국 동시다발 추모문화제

- 지역본부 주최·주관
- 곳 : 광역 시도별 거점 및 분향소 앞

1/19 고 김용균님 추모 전국노동자대회 및 서울 집중 범국민추모제

- 때 : 2019년 1월19일(토) 오후 2시
- 곳 : 서울 광화문 광장 북측 광장
- 참가 지침 : 전조합원(확대 간부 필참)
- 5차 범국민추모제 : 오후 3시 반

《유가족과 대책위 5대 요구》

- ▶ 문재인 대통령 사과!
- ▶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배상!
- ▶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법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처리!
- ▶ 비정규직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 ▶ 현장 시설개선 및 안전설비 완비!



슬픔과 추모를 넘어
행동으로

- ▲ 추모 버튼 및 리본 패용
- ▲ 사업장별 추모 분향소 설치
- ▲ 지역 대책위 추모 문화제 및 추모행동 조합원 참여 조직
- ▲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
- ▲ 추모 및 투쟁기금 모금
(카카오뱅크 3333-08-9726770
김동중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